

총장-뉴스레터 - 67 (2023-10-27)

출 11 장 1 절-10 절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심)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멧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출애굽기 11:5)

바로를 위시한 모든 애굽 백성들의 집안에 임한 장자 재앙의 날은 일면으로는 애굽 10 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의 날이었다. 그러나 일면으로는 그 결과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이 실현된 유월절의 기원이고 또 그 자체가 최초의 유월절 날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장자 재앙 및 유월절 사건에 대하여 먼저 11:1-3 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11:4-10 절은 모세가 바로에게 최후의 재앙이 될 장자 재앙에 대하여 미리 통고한 사실을 보도한다. 그리고 12:1-20 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장자 재앙을 피함은 물론 그 장자 재앙의 결과 애굽의 박해로부터 구출되어 온전히 출애굽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서 어린양 희생의 피 등에 관한 명령들을 주시면서 동시에 이것을 출애굽 사건을 영원히 기념하는 유월절 및 무교절의 규례로 출애굽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제정하셨음을 기록하고 있다.

임금보다 현명한 백성

자기가 신과 같다고 으시대는 임금보다는 백성이 더 현명해 보인다. 12:36 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승리자로서 애굽을 떠나기 때문에 패물(기구나 장식물)은 '약탈물'로 간주된다. 3:21 의 표현(빈 손으로)에서는 같은 사실을 이와는 다른 관점에서 예고한다. 곧 빛 때문에 종이 되었던 자를 그 종살이 기간이 지난 다음 '공수'로 보내지 말아야 하듯이(신 15:13), 노예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그 동안 자기들이 착취당한 부역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멧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려고 했던 일(1:22)이 애굽 사람들의 장자(처음 난 것)에게 닥친다. 처음 난 것은 특별한 생력력을 지닌 존재로 간주된다. 이제 곡성(그 히브리 낱말은 3:7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디 '부르짖음'을 뜻한다)이 애굽 사람들 쪽에 있을 것이다. 8 절에 의하면 모세가 아직 바로와 마지막으로 만나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예고한 것이다.

이 재앙의 적용 범위가 모든 것에 미침을 강조한다. 생축의 처음 난 것(삐코르 삐헤마)은 넓게는 모든 짐승을 그리고 좁게는 가축만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말하기 어려우나 이 단어가 사용된 목적 만큼은 매우 분명하다. 이것은 사람 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심판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심판의 엄정성을 보여 준다. 그러나 당시 애굽사람들이 짐승을 우상으로 섬기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볼 때 짐승에 대한 심판은 우상들의 무력함을 보여 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사람에게 있어서도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언급하였다. 직역하면 '두 맷돌 뒤에 있는'이다. 맷돌이 쌍수인 것으로 보아 당시의 맷돌이 두개가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애굽에서 사용되던 맷돌은 고정된 하나의 돌과 그 위에서 돌아가는 돌의 마찰을 이용하여 곡식을 빵을 때 사용된 것으로 맷돌을 돌리는 사람은 천민이거나 노예였다.

애굽 전국에 큰 곡성

'애굽 땅 전체 안'에서 들리는 곡성은 열번째 재앙의 범위가 바로의 통치권이 미치는 애굽 땅 전체에 미칠 것을 선언한 것이다. 큰 곡성은 갑자기 임한 장자들의 죽음에 대한 놀람이나 그들의 장례 관습대로 몸부림치면서 가슴을 치며 슬픈 소리를 내며 우는 '울부짖음'을 가리킨다.

생각하기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은 일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하나님 한 분 만이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른 모든 신은 거짓됨을 확실히 보여 준다는 의미도 지닌다. 히브리인들은 애굽의 노예생활이 주는 압제로 인하여 부르짖었다(3:7). 이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 고통을 그 원수에게 갚아 주시려고 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 마지막 때에는 고통스런 마음에서 나오는 의로운 자들의 울부짖음이 악인들에 대한 형벌을 촉구하는 소리가 될 것이다(사 65:14).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한편 악인들에게 그 고통을 돌려 보내신다(시 107:6,28).